

성경적인 장로상을 추구하십시오

하용조 목사

1. 성경적인 장로상을 추구하다.

온누리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첫 번째 과제는 “어떻게 성경적인 장로를 세울 것인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에 있어서 영적인 리더십을 잘 세우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목사와 장로입니다. 그들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가 되면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 장로 선택의 몇가지 원칙

- 1)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하여 장로를 세운다.
- 2) 피택된 장로는 임직 전에 장로학교에 입학하여 훈련한다.(9개월)
- 3) 시무장로와 공동체 장로와 사역장로를 구분하여 은사에 따라 섬기도록 한다.
- 4) 안식장로 제도를 둔다.
- 5) 1년 또는 2년에 한번씩 장로 연장교육 제도를 둔다.(3개월)

장로를 세울 때 조심할 일은 조급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적 기준보다 영적인 기준을 우선하며 그 사람의 위치와 신분보다 신앙과 인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선택하려 했습니다.

2. 장로 선발의 원리

교회는 장로와 집사의 지도력으로 운행됩니다.

장로 (또는 감독)를 라틴어로 pastor(목자)라고 부르는 데 이는 장로의 본질을 잘 묘사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선지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라고 되어 있으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는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로는 세상적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 의해 선택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장로의 자격을 엄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 7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며” 한마디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 1) 개인적인 자격-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한 아내의 남편,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고집대로 아니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2) 가정생활 - 하나님의 질서와 일치해야 한다.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이 단정하며

자녀들이 순종하며

3) 대인관계 -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사모하며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한다.

4) 신앙적인 측면 - 영적인 자격이 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이 아니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여기서 장로의 특징이 잘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집사가 해야 할 일들을 장로가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목사 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3. 장로 예비 학교

장로로 피택이 되면 장로 예비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매주 토요일 또는 월요일 새벽6시-7시30분까지의 훈련은 교과 과정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부부가 함께 훈련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습니다.

- 1) 훈련기간동안 성경을 1독한다.
- 2) 교회론과 목회철학 외 4권(그룹별 독후감 발표)
- 3) 사역훈련
- 4) 봉사훈련
- 5) 사역지 탐방
- 6) 새벽기도 출석
- 7) 기타 특강

4. 시무장로와 공동체장로와 사역장로

시무장로에는 그 은사에 따라 공동체를 섬기는 공동체 장로가 있고 사역을 전담하는 사역장로가 있습니다. 장로의 기본적인 임무는 다스리는 일과 가르치는 일입니다.

1) 시무장로의 역할 -

2) 공동체 장로의 역할 -

3) 사역장로의 역할 -

5. 안식장로의 축복

장로 안식년제도는 한국교회의 질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의 안식제도처럼 장로의 안식제도는 자신의 신앙적인 재충전과 더불어 영적 성장의 발판을 만들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목사 안식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경에서 장로의 안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이미 시행한 교회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이지만 반드시 안식과 장로 재교육을 통하여 신선한 충격과 더불어 변화의 장을 만들어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장로 시무 4년차에 안식장로 제도를 만들어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재정비하게 합니다. 가능하면 안식기간 동안에는 다른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며 특별히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는 등 재충전의 시간을 만들어 줍니다.